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대회를 지도하시고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 대회가 12월 4일과 5일 4.25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 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어 지도하시었다.

대회에는 모범적인 군사교육일군들과 총정치국, 국방성, 총참모부의 해당 간부, 지휘관들,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과 교육보장단위의 공로있는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원수님께서 대회장에 나오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개회사를 하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군사교육사업을 제일로 중시하고있는 당의 의도와 군사교육일군들의 사명과 임무의 중요성, 대회의 소집목적에 대하여 언급하시어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대회가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적극적인 참가밑에 주체적인 군사교육발전로정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 도약의 공적으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개회사를 선언하시었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인 리영길류군대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군사교육사업에서 실제적인 개선,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교원들이 정치도덕적품성과 교육자적자질을 갖추고 군사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 교육방법을 일신시키는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소개되고 공유되었다.

당의 군사교육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자기 단위의 실제적인 진보와 혁신으로 입증하겠다는 사상적각오가 부족한데로부터 발로된 일련의 편향들과



그 원인이 분석총화되었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모든 교육일군들이 군사교육을 하루빨리 더 높이 추켜세우겠다는 각오와 자신심을 가지고 과감한 용기와 분발력, 진함없는 열정과 투지를 발휘하여 군사교육사업전반에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이룩해나갈데 대하여 언급되었다.

대회에서는 당의 군사교육혁명방침관철정형을 기본으로 한 군사교육기관들의 순위가 발표되고 모범적인 단위들에 우승기가 수여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대회가 력사적인 당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강령과 방침에 따라 우리 혁명이 새로운 승리의 다음단계에로 이행하고있는 중대하고 관건적인 시기에 진행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대회를 특별히 중시하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있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전략적의도와 현정세하에서의 군사교육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군사교육일군들을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참된 교육전사로 준비시키며 군사교육사업을 철저히 당의 사상과 정책, 방식대로 조직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을 당중앙에 절대 충성하는 지휘성원들로 육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제반 원칙과 군사교육의 발전방향, 과업과 방도들을 천명

하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군사교육일군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군사교육혁명수행에 한사람같이 총결기, 총매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지녀야 할 기본품성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영원한 강대함과 필승불패를 위하여 일심전력을 다해 군사교육혁명의 새로운 양양기, 도약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결론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독창적인 사상리론적 예지와 한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군사교육

혁명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는 탁월한 스승을 우러르며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폐회사를 하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혁명무력의 력사에서 여덟번째로 열린 군사교육일군대회가 참가자들의 높은 열의속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데 대하여 평가하시어 우리의 군사교육을 국가적으로도 제일 앞선 교육을, 혁명무력의 핵심진지강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교육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대회사상과 정신을 깊이 새겨안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당의 군사교육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진일보를 가져오으로써 혁명적당군건설, 최정에강군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리라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표명하시었다.

대회는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군사교육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혼심을 다 바침으로써 우리 당에 절대충성하는 유능한 군사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해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철석의 의지와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었다.

대회기간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원수님께서 12월 7일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군사교육일군들이 이번 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새기고 교육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 실제적인 변화를 이룩함으로써 주체적혁명무력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민중하에 특기할 기적적 승리를 안아오신 불멸의 경도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치신 창조의 거장

반만년민중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건설의 대번영기,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웅대한 구상과 비범하고 무한한 창조의 세계가 안아온 역사의 기적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시대를 펼치시어

위대한 창조는 이 땅을 참으로 놀랍고도 눈부시게 전변시켰다. 역사의 갈래갈래를 더듬어보면 남다른 창조적재능과 활동으로 사회역사발전의 공헌한 위인들의 전기와 수많은 새겨져있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만난시련을 강행돌파하시며 세기적인 전변을 안아오는 결출한 경도자의 창조실록은 찾아볼수 없다.

엔지니어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우리는 건설에서 인민대중제 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융계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통과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이것은 건설에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며 주체적건축사상의 근본핵이라고 밝혀주시었다.

문사 사장이 웨브사이트에 미래 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찍은 수십장의 사진들을 실으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 일떠선 건물들이라는 해설글을 올리자 모든 가입자들이 《상상을 초월한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홀하다》고 하면서 저저마다 놀라움과 경탄을 표시하였다.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건설의 대번영기와 더불어 이 나라 인민들의 삶도 변화하였다.

이렇듯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세계를 놀래우는 전변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창조자의 거장이다.

113건의 문물놀이장의 형성안을 비롯하여 590여건의 미래과학자거리형성안도, 1390여건이나 되는 려명거리형성안도 하나하나 지도해주시면서 현실의 낮과 밤을 보내신것도 오로지 인민을 위함에서였다.

인민들이 쓰고사는 건물이면 손수 바닥도 쓸어보시고 인민들이 맨발로 다녀야 하는 문물놀이장의 구석구석까지도 세심히 살펴보시는분, 인민이 앉을 의자에 몸소 앉아보시고 한창 건설중인 건물의 란간없는 계단과 초고층살림집의 마지막층까지 밟으시며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는 경도자, 바람세찬 건설장에서 친히 수첩에 그림까지 그려가시며 훌륭한 완벽함을 더해주시는 인민의 아버지가 공화국인민의 미래를 지켜주고계신다.



러 명 거리



삼 지 연 시



마 식 령 스 키 장



과 학 기 술 전 당

착실한 사상리론의 거장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사상리론을 제시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모든 근로자들을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키우시려는 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시고 실현해오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에 관한 사상리론을 계승하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시고 실현해오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에 관한 사상리론을 계승하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시고 실현해오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에 관한 사상리론을 계승하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시고 실현해오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에 관한 사상리론을 계승하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시고 실현해오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에 관한 사상리론을 계승하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시고 실현해오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에 관한 사상리론을 계승하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후대사랑의 정치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온 나라 아이들의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하고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시어 해빛같은 사랑도 숭고한 현실의 로정을 가슴뜨겁게 품어 후대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 돌이켜본다.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민중의 아버기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속에 피눈물의 12월을 보내고 처음으로 맞이한 날 하셔야 할 일이 그토록 많으시고 찾으실 곳이 한두곳도 아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어 원아들에게 온갖 사랑과 배려를 들려주시실 줄 인민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때로부터 몇달이 지난 5월, 온 나라를 열리게 하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절을 조국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전례없는 성대한 축전으로 경축하도록 하시었던것이다.

그처럼 품을 들이시고 심혈을 기울이시어 소년단원들을 위한 성대한 경축행사를 마련해주시고 조선소년단 창립 66돌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에도 몸소 참석하시어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동무들!》이라고 정답아 불러주시며 사랑

을 들이는 불같은 진정으로 이 땅의 아이들을 조선의 레일을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키우시려는 결심과 의지였다.

(다음호에 계속) 본보기자 김영범

민족의 영광과 행복으로 여는 10년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불세출의 위인 (5)

고결한 민족애와 확고한 자주통일의지를 담아

2021년 9월말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text continues)

림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 북남사이의 신뢰가 보장되면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북남관계를 대해야 한다는 것, 북남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사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민족애와 확고한 결심, 통 큰 결단과 넓은 포용력에 의하여 2018년 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그 어떤 풍파와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겨레의 숙망인 조국통일을 이룩하실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여 승리로 이끄시는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대성인이시디.

과 남은 중대한 북남공동선언들을 발표하여 삼천리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의 간섭과 동족에 대한 편견적이며 적대적인 관점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과 군부호전광풍의 방해책동에 의하여 온 민족의 기대와 충의를 담아 채택한 북남선언들은 어느 한조항도 리행되지 못하고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로 적대시관점과 정책들을 철회하지 않거니와 아무런 태도변화도 없는 남조선당국의 철면피한

행위로 북남관계는 사실상 남조선에 보수《정권》이 존재하던 시기와 조공도 다를 바없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리해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또다시 밝혀주시었으니 온 겨레는 한없이 고결한 민족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그이를 위하여 끝없는 감사와 흠모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온 겨레를 불러 일으킨 고무적기치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천명하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보내고있으며 그 관철을 위한 성스러운 려정에 힘있게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의 진보당, 《한국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자주통일평화변혁운동연대

그러면서 거둬들이는 북의 긍정적모습에 남측당국이 적극 화답해야 한다. 현 《정부》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마음으로 행동에 나선다면 우리 민족은 물론 전세계가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자주시보》를 비롯한 언론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현 《정부》는 북의 요구에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해나서야 한다. 현 《정부》가 북의 군사적행동은 《도발》이고 남조선이나 미국의 행동은 관찮다는 불공정한 견해를 버리고 북을 불신하는 언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수많은 해외동포들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은 온 겨레를 통일운동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기치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 결의를 피력하고있다. 참으로 겨레의 통일지향과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시려는 철석의 신념과 확고한 자주통일의지가 맥박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정연설은 겨레를 조국통일위업수행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투쟁과 전진의 기치이다. 의연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가장 정확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을 밝혀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이제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어나갈것이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강하고 자주적인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것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본절 조국통일위업을 위한 투쟁의 최전선의 애국투쟁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도 불구하고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민족분열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참된 애국자가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통일하는것보다 더 중대하고도 절박한 과업은 없다. 70년동안이나 지속되고있는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열로 하여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지금 조선사람치고 그가 어느 계급, 어느 계층의 출신이건 또 복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 민족분열로 하여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려 할 동족사이에 대결과 불신이 격화되고 삶의 터전인 조선반도가 전쟁의 위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다. 만일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지 못한다면 자라나는 세세대들도 민족분열의 비극을 겪게 될것이며 북과 남사이에 민족적공동성마저 사라지고 민족이 영원히 홀로 갈라지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조선민족이 홀로 갈라진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과 불행은 없을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길이라면 통일은 자주와 변혁의 길, 민족이 살길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야말로 최대의 애국투쟁이다. 애국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감정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며 가장 보람

있는 삶도 조국을 위한 헌신에 있다. 오늘 조선사람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은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탁시키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데 있다.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애국의 마음이 조공도 없는 사람이다. 민족의 분열을 더없는 아픔으로 여기면서 조국통일위업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이라면 애국심을 가졌다가 못했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동시에 민족적특질이기도 하다. 조선민족의 피와 땀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국통일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자기를 아낌없이 바칠줄 알아야 한다. 통일을 떠나 살수 없는것이 우리 겨레이고 애국을 떠나 미래를 생각할수 없는것도 우리 겨레이다. 우리 겨레에게는 민족최대의 숙원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이 펼쳐져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국통일의 기치,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이 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계시기에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어나가고있다. 온 겨레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의 령도따라 나아가갈 때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력사적로정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결성과 적극적인 활동

조국통일위업의 성패는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어떻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79(1990)년 5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단체와 조직들은 서로 협력하고 령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여러 조직들, 각계층 인사들을 망라하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할때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 민족대통일전선을 확대공고화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단체와 조직들의 활동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상설적인 통일전선체를 내오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갔다. 이 무렵 상설적인 전민족적통일전선체를 형성할수 있는 현실적조건이 성숙되고있었다. 남조선에서 《전민련》을 비롯한 령합전선체조직들이 나왔고 해외에서도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동포

대회를 포괄하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연합체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완비하게 되었으며 범민련의 통일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적기초가 보다 강화되게 되었다. 범민련은 베를린3자실무회담의 결의에 따라 제2차 범민족대회의 서울개최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1991년 8월 15일에 진행된 제2차 범민족대회는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에로 말미암아 비록 예정대로 서울에서 진행되지는 못하였지만 판문점과 서울, 도교에서 같은 일정에 따라 같은 의제를 토의하고 공동의 문건을 채택한 력사적인 통일협상마당으로 되었다. 범민련은 제2차 범민족대회후 온 민족의 지향과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활동을 적극화하였다. 범민련 제1차 공동의장인회의의 결의에 따라 1992년 8월 13일 평양에서 조국통일방도를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은 어제 오늘도 변함이 없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그러한 념원을 담아 통일이라는 이름을 새긴 뜻깊은 거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평양시의 남쪽판도에 위치하고있는 통일거리이다. 통일거리는 지난 1990년대 초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건설된 평양의 주요간선거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을 일일천주로 갈망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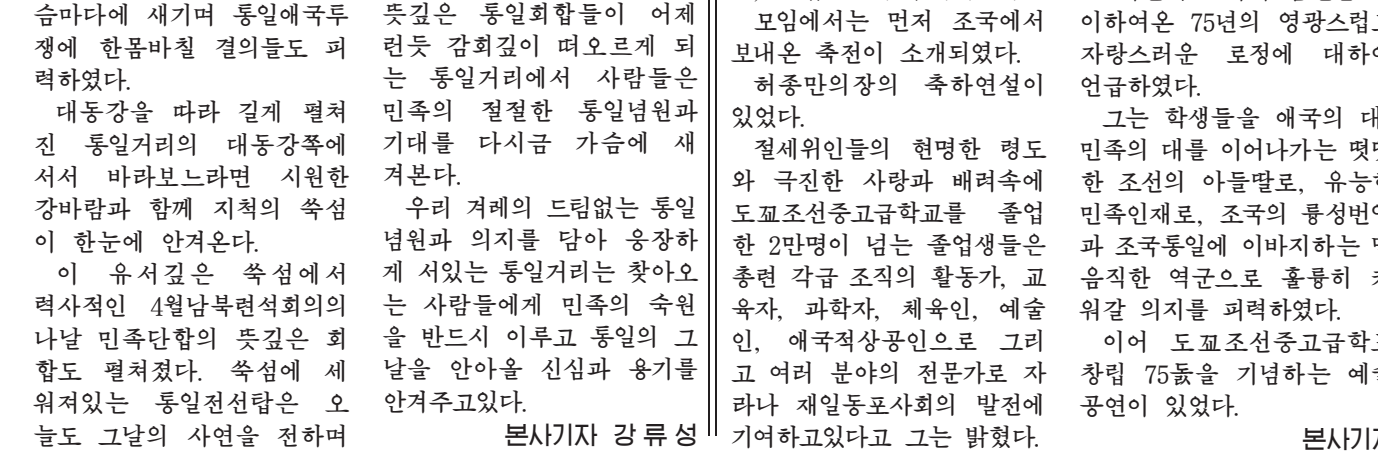
겨레의 통일념원이 어린 거리

우리 겨레의 념원을 반영하여 주체78(1989)년 12월 평양시건설계획사관과 설계형성시안을 친히 보아주시면서 광복거리2단계건설과 함께 통일거리를 새로 일떠세울것을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을뿐 아니라 그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당시 통일거리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겨레의 통일념원과 의지가 비친 통일거리건설을 짧은 기간에 완공하였다. 그때 통일거리건설에 참가하였던 평양시 만경대구역의 박금진로인은 《통일거리를 일떠세우던 건설자들의 열의가 대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아래 이 땅에 기어이 통일을 안아올 결심과 의지를 담아 통일거리건설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평양시 중구역에 사는 김철성은 《당시 건설에 참가

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 이 땅에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는 심정으로 낮과 밤을 모르고 일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청년 이들의 이야기처럼 통일거리에는 조국의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이 나라 인민들의 통일념원이 뜨겁게 어려 있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통일거리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나라의 통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줄은 각오에 넘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고 곳곳에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건축물과 조형물들을 볼수 있었다. 통일거리에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다 아는 성스러운 기념탑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높이 솟아 있다. 이 기념탑으로는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기념탑이 많지는 않고 남, 해외의 각계층 사람들이 찾아와 조국통일을 위해 바친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헌신의 세계를 가슴마다에 새기며 통일에국투쟁에 한몸바칠 결의들도 피력하였다. 대동강을 따라 길게 펼쳐진 통일거리의 대동강쪽에 서서 바라보노라면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지척의 속성이 한눈에 안겨온다. 이 유서깊은 옥섬에서 력사적인 4월남북연석회의의 나날 민족단합의 뜻깊은 회합도 펼쳐졌다. 옥섬에 세워져있는 통일전선탑은 오늘날도 그날의 사연을 전하며

총련 도교조선중고급학교창립 75돐 기념모임 진행

총련 도교조선중고급학교 창립 75돐 기념모임이 얼마 전 일본 도교조선중고급학교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허중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송근학부장 겸 교육국장, 강주현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위원장, 박충우 재일본조선상권문화회 회장, 총련본부위원장들과 지부위원장들, 각급 학교 교장들과 그리고 도교조선중고급학교 교직원들, 학생들, 학부형들, 졸업생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조국에서 보내온 축전이 소개되었다. 허중만회장의 축사연설이 있었다. 그는 학생들을 애국의 대, 민족의 대를 이어나가는 몇몇한 조선의 아들딸로, 유능한 민중선수로, 조국의 통일번영과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는 민중적인 역군으로 훌륭히 키워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어 도교조선중고급학교 창립 75돐을 기념하는 예술 공연이 있었다. 본사기자 강류성



시론
미국의 오만과 횡포에 남조선 각계가 분노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국의 오만과 횡포에 대한 각계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호전세력이 미국과의 제53차 《한미년례안보협의회》라는 것을 벌여놓았다.
말그대로 《년례적》으로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모략들을 고안해내곤 하던 음모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위협수위가 어마무시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골방에서 논의된 내용이라는 것이 조선반도에서의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작전계획 5015》, 그 무는 《군비사태》를 가상한 《작전계획 5029》 등 기존의 북침전쟁계획들을 전면 수정보충한다는 것이다.
특히 1차적으로 《작전계획 5015》를 수정보충하겠다고 한다.
공화국에 대해 《적대의사가 없다》고 공식 선언했던 미국이나 《평화》를 넘볼처럼 위하던 남조선당국이 자기들의 검은 본심을 드러낸 무모하고 무분별한 모의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의 등장인물 대결, 《평화》가 가장한 전쟁을 추구해왔다는 것도 더욱 명백해졌다.
미국의 망동은 경색된 북남관계를 저들의 패권주의 전략실현을 위한 도구로, 조선반도를 대륙침략의 전초기지, 병참기지, 발진기지로 만들어 놓은 음흉한 타산물에 계획된 것이다.
그런 속심으로 전쟁계획들의 수정보충은 물론이고 남조선전쟁 미군의 현상유지와 순환배치를 《미끼》로 던져주면서 남조선당국의 전시작전통제권반환요청도 묵살해버린 것이다.
남조선호전세력을 《동맹》의 사슬에 더욱 얽어매놓고 대륙침략의 대모방으로, 돌격대로 앞세우기 위해서라는 것도 자명하다.
미국은 지난 시기 각종 침략전쟁계획들을 세워놓고 어리석게도 《기다리는 전략》에 매달리다가 궁극에는 저들의 전략의 총파산을 자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전쟁장단에 맞추어 대결의 칼춤을 추면서 물던범술던범 날뛰는 남조선당국도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 망동이 어떤 종말로 이어졌는가를 되새겨야 한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노는 행태를 보면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도 돌아앉아 《이 몇장장의 성명에 우리의 운명을 점칠 수 없으며 또 믿을 수 없다》고 되뇌이면서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을 부르짖으며 공동성명의 기본정신과 합의사항을 망동과 다를바 없다.
3년전의 북남선언들을 모독하고 백지화하려고 날뛰는 보수세력과 역겨운 입맞춤을 하는 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강력한 자위적억제력을 갖춘 공화국에는 그 무슨 《맞춤형억제력》이든, 연합억제력세이든 그 무엇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참으로 가련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부안하건대 물과 불처럼 평화와 전쟁은 랑밍할 수 없다. 반공화국적대세력에게는 강대 강심 대 세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천명된 공화국의 원칙적립이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 파괴하려는 위협천만만 《전쟁2차창》이 자기들의 장송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별없는 처신일 것이다.



과침의 길로 질극하는 근극극의 마차

일본에서 첨단무기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도 일본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중에 있는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지상대공미사일의 실전배치준비를 끝내고 합정탐재용미사일은 2026년에, 전투기탑재용미사일은 2028년에 시제품을 만들기 작정하는 등 미사일개발과 성능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공화국과 주변 나라들의 《위협중대》를 운운하며 저들의 군사력증강행동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공적무기개발은 결코 자국의 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러면에는 불순한 기도가 깔려 있다.
일본이 개발하려고 하는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까지 다 포괄한다.
주변국들의 경제침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장기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나라들에 대한 선

남 조선을 생화학무기시험장으로

얼마전 미국이 남조선에 미군군의 생화학무기시험장 순환배치하겠다고 한다.
미국방성이 진행한 해외주둔 미군배치검토가 완료된 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 각계층에서 미국군 순환배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범죄적책동은 남조선전역을 생화학무기시험장으로 전락시키고 조선반도에 반인륜적인 대대양을 몰아오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이다.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세균전쟁을 감행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952년 《세계평화회의》와 《국제민주법률가협회》가 작성한 보고서들에는 미군이 조선반도의 여러 지역에 세균독탄을 투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화학전을 감행한 자료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은 전후에도 남조선에서 국제법이 어긋나는 여러가지 세균무기시험을 계속하여 왔으며 지어 대량의 열화우라늄을 탐까지 비축해놓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군수업체와 남조선주둔 미군군사시설실 위태운영기업들이 부산과 대구, 왜관, 서울, 동두천, 청원진 진해 등을 비롯한 미군기지에서 각종 생화학관련무기를 시험할 인력을 모집하는 광고까지 낸 사실이 얼마전에도 드러났다.
남하미군 남조선전역에 미군의 항시적인 생화학무기시험장으로 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재앙을 가져다줄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조선민족이 불행과 재앙을 당하든말든 저들의 세계제패 야망만 실현되면 그만이라는 것이 바로 미국의 흥심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을 가리켜 우리 겨레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고 하면서 미군이 없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사기자 전 명진

온갖 강력범죄가 성행한다

남조선에서 살인,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번져지고 있다.
지난 5년간 강력범죄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한해 평균 약 3만 2000건으로서 그것은 이전시기보다 2000여건이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특히 미성년들속에서 강력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남조선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미성년들의 강력범죄는 한해 평균 427건에 달하며 일부 강력범죄는 그 수범과 잔혹성이 있어서 성인범죄 못지않다고 한다.
2019년 12월 경기도의 초

평생동안 한번이라도 강간, 성추행 등의 성적범죄를 받았다면...

7.8%)이나 유흥(4.3%) 등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 사실이 이를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을 상대로, 려인들사이에 발생하는 강력범죄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가족을 대상으로 감행된 강력범죄는 한해 평균 69건으로서 전체 살인사건의 5%를, 려인들사이에 발생한 강력범죄건수는 지난 5년동안 6만 130여건으로서 그중 살인은 227건, 성폭력은 644건이나 된다고 한다.
사회적약자인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는 더욱 우성해졌다고 한다.
여성가족부가 밝힌데 의하

정치혐오감만 증대시키는 권력쟁탈전

남조선의 선거정국이 날이 갈수록 우수선승되고 있다.
특히 여야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기 바쁘게 상하후보의 발인 하나, 움직일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과 막말비난전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얼마전에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 보가 자기야 내뱉었던 공약에 대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국민의 혼란만 부추긴다》고 공격해나섰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후보인 윤석열의 처가부정부패의혹과 《주52시간제철폐》발언, 선거대책위원회구성을 둘러싼 당내갈등을 비호하며 맞받아쳤다.
한편 청년들을 끌어당기고 지역민심을 쟁취하기 위한 지지확보에 경쟁적으로 매달리는 등 지지확보를 위한 여야당의 활동도 경쟁적이라고 한다.
특히 낮은 지지율에 머물러있는 청년층을 끌어당기기 위한 여야사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한다.
20, 30대의 청년층에 대한 여론조사들에서는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자가 68%,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자가 56%정도로 달하는 등 무당층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여야당은 청년층 쟁취여부에 사활을 걸고 저지마다 청년문제와 관련한 마를리기를 둘러싼 당내분란이 이어지며 젊은층의 지지를 잃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 정치평론가는 《주52시간제, 김종인, 리준석 모두 윤희후보의 정치적, 정책적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상이 큰 행보》라며 《주52시간제발언의 경우 로동현실, 청년일자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고 튀어나는 발언에 가깝다. 청년층은 윤석열후보의 발언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예평하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도 《혁신을 멈춘 야당에 대한 민심이 쇠고였다. 윤석열후보가 선택된 후 인사를 두고 번갈아 불평을 냈다》고 평하였다.
남조선의 여론들은 더욱 치열해지는 여야간의 권력쟁탈전으로 하여 민심의 정치혐오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년말, 년초에 민심을 잘못 읽는 쪽의 지지율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류현철

《불평등을 타파하고 생존권을 쟁취하자》

- 남조선에서 《전 국민대회》 진행 -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한데 의하면 서울에서 빈곤사회권과 인구조립전국연합 등 각계층 로동운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축로 《2021 전국국민대회》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회참가자들은 로점상 인, 로양진수산시장 상인, 개발지구 주민, 장애인, 로숙인 등의 의제를 내세우고 《법도 바야이 면지다!》, 《불평등 타파! 빈민생존권 쟁취!》의 구호밑에 사회적으로 배척받고 차별받는 빈곤의 문제해결을 강하게 요구해나왔다.
앞서 진행된 로동자대회, 농민대회에 이어 진행된 이날 빈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광택을 동원한 로점상 강제철거, 개발지구 강제집행 조 거리에 내몰린 철거민, 로숙인에 대한 형벌화조치, 장애인등에게 가짜페지 등을 규탄하

단 평 《검찰독재》 호의 운명은...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관지연 시달림에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구성했다고 한다.
앵뎀어져 튀쳐나갔던 당대표 리준석과는 술 한잔 사며 이고 《화해》를 하고 치우 부터 온다 안온다 원새기 꼬던 김정은은 《총괄》이라는 직함을 주어 버리고, 그런 식으로 굶어오아 뚝뚝거리 만들어낸 것이다.
그에서인지 한강에서는 《폭탄 주 마시고 출항한 《윤석열》 호》, 《반창고로 땀땀한 선대위》라고 한다.
이쯤까지 지었는데 그 무에 《살리는 선대위》라든지, 무엇을 살리는가. 어느 한 녀성정치인이

연사는 예상이 당대표, 《주도권을 거머쥔 김종인》이다.

윤석열은 뭘 하는가. 흔히 말하는 《얼굴마담》이다.
김종인과 리준석이 하라는 대로 옷을 바꿔입으라면 바뀌고 거리에 나가자면 또 나서고.
최순실이 하라는대로 박근혜가 놀아낸 식이다.
윤석열을 보고 《남자 박근혜》라고 조소했건 것이 우연치 않다.
《윤석열》호는 뭇사람들 윤석열은 이름만, 얼굴만 있다.
그런 윤석열이고 《국민의힘》이어서 남조선인민들이 등을 돌리고는 있다.
이제 《윤석열》호는 독재 부활을 향해 부지런히 노를 저어갈 판이다.
장차 어떤 파도에 부딪힐 지도 모르고.
김정혁



